

오보의 발생과 대책

서 정 우 교수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1. 문제의 제기

보도는 언론의 생명이며 존립요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도를 떠난 언론이란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생각해서도 안된다. 언론의 대표적인 내용인 논설이나 해설 등은 기본적으로 보도로부터 연유된 기사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언론은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정보제공의 기능, 환경감시와 비판의 기능, 사회교육의 기능, 문화전승과 발전의 기능 그리고 민주화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 언론이 수행하는 이러한 기능들은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언론의 보도기능으로부터 확장된 기능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겠다.

보도에는 바른 보도와 바르지 못한 보도가 있다. 언론은 저널리즘의 특성상 바른 보도만을 지향한다. 따라서 바르지 못한 보도는 언론의 고유한 영역도 아니고 언론의 고유한 대상 또한 아니다. 오보는 바르지 못한 보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속한다고 보겠다.

오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보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보 발생의 영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언론을 현재 가장 괴롭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오보의 발생배경은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언론은 오보의 발생배경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언론은 오보 발생 자체를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오보는 계속 확장되고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대사회는 언론으로 하여금 조그마한 실수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구조적 변혁을 현재 경험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거의 극복하는 국제화사회의 등장,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지배적인 가치로 부각되는 지식·정보화사회의 등장, 첨단과학기술사회의 등장, 그리고 매체의 가공할만한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매체환경의 확장 등은 언론으로 하여금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오보를 용납할 수 없게 만든 사회변화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사간의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주고 나아가서는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적기관이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시민의 권리회복이라는 직접적인 목적과 언론으로 하여금 잘못된 보도를 개선케 함으로써 대국민 공신력을 제고케하는 간접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기관이란 뜻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오랜 역사는 그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양한 중재과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피해를 준 언론인에게 공히 잘못된 보도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일깨워준 공헌을 남겨왔다고 평가된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언론인들에게 오보의 심각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준 유일한 기관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본고가 오보의 심각성을 제기하게 된 문제의식이며, 언론중재위원회가 본 토론회에서 오보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보도의 중요성과 현대사회의 변화

1) 보도의 위상과 기능

보도와 언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의 위상은 바로 언론의 위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론의 위상은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이데올로기와 이론적 전개과정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된다. 공산주의 이념에 의하면, 언론이란 정치체계의 하위구조로서 이념적 무기와 혁명적 도구로서 규정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의하면, 언론이란 정치체계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치환경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제4부로서 규정된다.

그러나 언론의 본질에 관해서는 이념이나 이론의 차이를 초월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언론의 본질이란 인간의 의사소통욕구(communication need)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니까 언론이란 인간의 의사소통욕구가 역사 속에서 영글어진 사회적 구현체라는 뜻이다.

신문, 방송, 잡지, 통신 등은 언론의 형상이고, 언론의 본질은 인간의 의사소통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의 중요성을 형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인간의 의사소통현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릇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러하듯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인 데 반하여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의 숙명적 한계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의 실체적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인 데 반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본

질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본질은 사회적 신경계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부연하면, 언론이란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기관들을 수직·수평적으로 연결하는 신경줄이란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기관들은 언론과 같은 사회적 신경계통에 의해서 연결될 때에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경줄 대신에 핏줄이라 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기관들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국민의 눈에 잘 보이는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쉽게 인정되는 데 반하여 언론과 같은 신경계통은 국민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언론의 본질은 민주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란 국민(民)이 나라의 주인(主)이 되는 정치이념을 의미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책임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라 살림에 관해서 잘 알지 않으면 안된다. 나라 살림에 관해서 국민이 잘 알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국민이 직접 찾아가서 나라 살림에 관해 알아보는 방법이고, 그 두 번째는 언론과 같은 공적 기구로 하여금 나라 살림에 관해서 상세히 보도케 함으로써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다.

현대사회와 같이 나라 살림의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는 방법은 비경제적이고 또한 비현실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은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그 정보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언론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은 바로 보도의 위상과 기능에 적용된다고 보겠다. 보도란 과연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는 보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도는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하는가.

보도는 인간과 사회를 위한 의사소통의 채널이며, 신경계통이며, 민주화의 길이다. 우리는 보도를 인간의 의사소통현상과 사회적 신경계통과 국가적 민주화차원으로 이해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보도를 형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본질로서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보도는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확장하고 신경계통을 활성화하고 민주화를 촉진하도록 기능해야 한다. 인간과 사회는 보도를 통해서 말하고 듣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과 사회는 보도를 통해서 표현욕구와 정보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궁극적 목적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있다. 보도의 궁극적 목적 또한 의사소통을 확장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사회의 건강과 안정은 인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경계통이나 혈관조직의 건강상태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사회의 신경계통이나 혈관조직이 건강해야 사회

가 건강하게 된다는 뜻이다. 보도는 사회의 신경계통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국민은 보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라살림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은 보도를 통해서만 나라살림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논리를 확장하면, 국민은 보도를 통해서만 주권행사와 같은 나라의 주인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도를 민주화의 지름길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바른 보도라야 바른 국민을 만들고, 바른 국민이라야 바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바르지 못한 보도는 바르지 못한 국민을 만들고, 바르지 못한 국민은 바르지 못한 민주주의를 만들게 된다는 뜻이다.

보도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보도의 위상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오보는 바르지 못한 보도의 대표적 유형에 해당된다. 오보는 의사소통채널을 붕괴시키고, 사회적 혈관계통을 병들게 하고, 민주화를 멎들게 하는 암적 존재가 된다.

2) 현대사회의 변화

보도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혁명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바른 보도는 현대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생산적 정기능을 극대화하게 되고, 바르지 못한 보도는 파괴적 역기능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보도의 중요성을 제고한 첫 번째 현대사회의 변화는 정보화라고 말할 수 있다. 정보사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보가 사회의 중심적 가치가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권력이고 금력이며 또한 지력(知力)에 해당된다.

보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보제공에 있다. 보도는 정보의 생산자이고 유통자이며 소비자가 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보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그 보도를 통해서 나라의 주인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추세가 된다. 정보화는 국제화를 야기하고, 국제화의 최종 연장선상에 세계화가 존재한다. 개방화는 국제화의 필연적인 산물로 나타나게 된다.

교통의 발달은 국가와 국가간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데 기여했고, 통신의 발달은 국가와 국가간의 정신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세계는 하나의 작은 지구촌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거리의 단축은 시간의 단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화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거리와 시간의 응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화는 세계화로 확대되고, 이러한 경향의 필연적 산물로서 개방화가 대두되는 것이다.

보도는 통신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도는 국가와 국가간의 공간과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도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를 자극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보도에 의해서 야기된 국제화는 다시 보도에 엄청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바른 보도는 바른 국제화에 기여하게 되고 바른 국제화는 바른 세계화와 개방화에 기여하게 된다. 그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바르지 못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화의 대두와 더불어 마치 개인이 사회 속에서 홀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국가 역시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해서 존립하고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의 문제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곧 이웃나라의 문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문제로 비화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보도는 국제화를 야기하는데 기여했고, 국제화는 다시 보도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술한 바와 같이, 바른 보도는 바른 국제화에 기여하게 되고, 그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바르지 못한 국제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보도의 중요성을 제고한 현대사회의 세 번째 변화는 첨단과학기술시대의 도래가 된다. 첨단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사회는 그 특성상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기회는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지만 위기는 첨단과학기술사회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보도의 중요성 문제가 제기된다. 바른 보도는 첨단과학기술사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대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가 하면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그 사회의 특성상 그 사회를 신속하고 엄청나게 파멸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과학, 우주과학, 에너지기술, 그리고 첨단통신기술 등이 그러한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들이라 판단된다.

매스컴환경의 대두는 보도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마지막 사회변화가 된다. 매스컴환경은 매스미디어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에 힘입어 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이 된 지 오래이다. 현대사회를 사는 현대인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스컴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가히 혁명적이라 말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증대는 자연스럽게 보도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바른 보도는 바른 매스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바르지 못한 매스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3. 오보발생의 배경

1) 오보의 개념과 오보사례

보도에는 바른 보도와 바르지 못한 보도가 존재한다. 바른 보도를 정보(正報)라 한다면 바르지 못한 보도는 오보(誤報)가 된다. 오보를 그릇된 보도(incorrect report)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오보는 다시 부정확한 보도, 불공정한 보도, 그리고 주관적 보도로 유형화될 수

있다. 부정확한 보도는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의미하고, 불공정한 보도는 보도의 균형감각이 상실된 치우친 보도를 의미하고, 주관적 보도는 보도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보도를 의미한다.

부정확한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함안 바둑이 보도사례, 평화의 댐 보도사례, 백선장 보도사례, 김일성 사망 보도사례 등이 있고, 불공정한 보도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삼청교육대 보도사례, 권인숙 양 성고문 보도사례, 광주항쟁 보도사례 등이 있고, 주관적 보도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전두환 우상화 보도사례와 군 우상화 보도사례 등이 있다.

함안 바둑이 보도사례는 물에 빠진 주인을 함안 바둑이가 구했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이 보도는 곧 부정확한 보도로 밝혀졌고, 전국의 신문·방송들은 일제히 사과공고를 게재하는 등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 사태의 발단은 술만 먹으면 전화통을 붙들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한 주정뱅이가 이장(里長)집 전화기를 붙들고 모 방송국에 엉터리 제보를 보냄으로써 시작된다.

평화의 댐 보도사례는 북한이 수력발전용 금강산댐을 건설하게 되면 그것이 남한에 대한 수공(水攻) 위협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문을 열면 서울 전체가 물바다가 된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이 보도는 결국 제5공화국 정부가 시국 전환을 위해서 조작한 내용을 전국의 언론들이 과장해서 보도한 사례로서 판명되었다. 국민들은 이 보도로 인해서 대응댐을 건설하기 위해 총 773억원을 모금하는 불안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이 사건은 전국의 언론들이 정부의 조작에 의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된 치욕적인 역사로서 기록되고 있다.

백선장 보도사례는 총 292명의 인명을 빼앗아간 우리 나라 최대의 해난사고의 선장이 살아서 중국으로 잠적했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이 사례는 명예롭게 순직한 선장을 도망갔다고 잘못 보도한 대표적인 오보로서 기록된다. 우리 나라의 언론은 확인절차도 없이 순직한 선장이 파렴치하게 도망쳤다고 보도할 만큼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김일성 사망 보도사례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9일 갑자기 사망했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시간에 김일성 주석은 외국의 사절을 평양에서 만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무슨 정보와 상황이 살아있는 김일성 주석을 갑자기 사망했다고 보도하게 만들었는지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백선장 보도는 죽은 사람을 살아서 도망갔다고 보도한 사례라면, 김일성 보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보도한 대표적인 오보사례가 된다.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우리 나라 언론의 슬픈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들이라 판단된다.

삼청교육대 보도사례는 1980년 4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라는 명분 아래 3만8천여 명의 국민들을 삼청대에서 교육시킨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다. 삼청교육이 사회정화와 사회악 일소라는 긍정적인 면만을 과장해서 부각한 나머지 삼청교육의 위법성과 인권유린 상태에 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사건의 양면을 공정하게 보도하지 못한 불공정 보도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1994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므로써 국가가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언론은 사회환경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역사의 기록자로서 그러한 일방적 보도 때문에 전체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권인숙 양 성고문 보도사례는 1986년 6월 제5공화국 정부가 시국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여대생 권인숙 양을 위장취업 혐의로 수사한 후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다. 권양은 수사과정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검찰, 사법부는 그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양의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그러니까 언론은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에서 약한 국민의 이야기는 외면하고 강한 권력기관의 앵무새 노릇만을 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을 망각했다고 판단된다.

1988년 7월 국가는 권양의 주장을 인정하고 수사관인 문귀동을 처벌함으로써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처하는 언론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시종 침묵해도 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항쟁 보도사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폭동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언론은 정부가 광주사태를 폭동이 아닌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짓기까지 광주사태의 폭동적 성격만을 보도하기에 급급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언론이란 정부가 규정하는 대로만 보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언론은 정부가 ‘시(是)’라 할 때 ‘비(非)’라 할 수 있어서 시비가 변증법적으로 ‘합(合)’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언론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이다.

2) 오보발생의 배경

오보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기자차원의 배경, 조직차원의 배경, 사회차원의 배경 그리고 국가차원의 배경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들은 오보를 발생시키는 데 단독적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적으로 얹혀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배경은 직접적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다른 배경은 간접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어떤 배경은 1차적으로 기능하는 데 반하여 다른 배경은 1차 배경이 기능한 후 2차 혹은 3차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어떤 배경은 미시적인 배경인 데 반하여 다른 배경은 거시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 기자차원의 배경

오보를 유발하는 기자차원의 배경은 크게 보도기술적 배경, 보도지식적 배경, 보도윤리적 배경, 그리고 보도관행적 배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보도기술적 배경이란 취재·보도에 필요한 기술적 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고, 보도지식적 배경이란 취재대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겸비와 활용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고, 보도윤리적 배경이

란 기사를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도덕적·윤리적 자세 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보도관행적 배경이란 오보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재·보도관행 차원의 배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배경은 결국 기사를 취재·보도하는 데 필요한 기자의 전문성 차원의 배경으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오보를 유발하는 배경이란 기술적 전문성, 지식적 전문성, 윤리적 전문성, 그리고 관행적 전문성 차원의 배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기자가 기사를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면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문성이 없든지 혹은 부족하면 바르지 못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기술이란 취재차원의 기술, 보도차원의 기술, 그리고 편집차원의 기술을 포괄한다. 기자가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재대상을 우선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관찰내용을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사화해서 편집하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기자에게는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그리고 민첩한 손발이 요구된다. 기사 취재는 손발로 하는 것보다는 머리로 하는 게 좋고,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하는 게 좋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니까 기자가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확인노력, 명쾌한 사고능력, 신뢰성과 윤리성, 그리고 복잡한 사안을 대중의 언어로 읽기 쉽고 간결한 문체로 표현하는 의사소통능력 등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오보를 줄이기 위해서 기자가 피해야 할 취재·보도상의 5대 암초는 서두는 행위, 게으른 행위, 부주의한 행위, 유행추구적 행위, 그리고 효과지향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오보들은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기자는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항상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을 실천해야 한다. 사실과 추측을 구별해야 하고, 형상과 본질을 구별해야 하고,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구별해야 한다. 판사는 판결로써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써 말하기 때문이다.

바른 보도는 보도기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취재·보도기자는 우선 바른 보도를 위해서 취재와 기사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데스크는 바르지 못한 보도내용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하고, 편집기자는 교정에서부터 제목작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사편집에서부터 지면구성에 이르기까지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나. 조직차원의 배경

하나의 바른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기자는 수많은 유혹과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을 철저하게 규율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혹과 영향력은 조직 내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조직 외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언론학에서는 기자가 기사를 생산하는 데 작용하는 영향력을 통제로 개념화한

다. 따라서 조직 내적인 유혹과 영향력은 내적 통제가 되고, 조직 외적인 유혹과 영향력은 외적 통제가 된다.

기자에게 가해지는 내적 통제는 크게 자율통제(self-control)와 조직통제(organizational control)로 유형화된다. 여기서 논의하는 조직차원의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조직통제를 의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직통제는 ① 사주에 의한 통제, ② 사규에 의한 통제, 그리고 ③ 수문장 과정에 의한 통제로 유형화된다. 이 중에서 기자에게 가해지는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조직통제는 아무래도 사주에 의한 통제라고 말할 수 있다.

사주는 언론사의 소유주이며 최고 경영자로서 기자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기자는 불복에 대한 제재,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 승진욕구, 내부집단(inner circle)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 등으로 사주의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본주의언론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기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주에 의한 통제는 사주의 철학, 사주의 취향, 사주의 언론관, 사주의 경영관, 사주의 정치적 이념과 소속 등에 의한 통제에서부터 사주의 무지, 사주의 무책임, 사주의 비윤리성, 사주의 비전문성 등에 의한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주에 의한 통제 가운데 기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가해지는 통제는 사주의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이해와 관련해서 행사되는 통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사주의 경제적인 이해는 기업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의미하고, 사주의 정치적 이해는 정치적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밀어주거나 깎아내리기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 와서 선진국에서는 사주에 의한 통제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추세의 주된 원인으로서 기자의 전문성 향상, 사주통제에 대한 법적 제재의 증가, 언론조직의 방대한 규모와 복잡성, 수문장 과정(gatekeeping process)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증가 등이 제시된다.

사규에 의한 통제는 회사의 사시(社是)에서부터 내규에 이르는 각종 규칙과 규정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조직은 조직특성상 각종 규범질서(normative order), 권위의 위계질서(authority ranks), 그리고 구성원 자격제도(membership coordinating system) 등을 필수로 한다.

이러한 사규 가운데 기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규정은 승진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 근무지 이동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 그리고 구성원 품위와 관련된 규칙과 규정 등이 존재한다.

수문장 과정에 의한 통제는 보도기사가 유통되는 관문을 지키는 책임자들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보도기사가 유통되는 첫 번째 관문은 해당 부서의 부장, 편집 부서의 부장, 그리고 편집국장, 담당이사, 사장 등의 관문이고, 그 다음의 관문은 광고책임자, 판매책임자, 공무책임자, 인쇄책임자, 배달책임자 등이 존재한다. 하나의 보도기사가 신문에 게재되기까지는 이러한 관문들을 통과해야 하고, 또한 관문의 책임자는 그 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다. 사회차원의 배경

엄격하게 말하면, 오보를 양산하는 문제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문제기자가 아니라 문제조직이다. 조직이 문제 속에 있으니까 문제기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문제조직이란 문제사회의 반영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보도기자는 하나의 기사를 생산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통제를 감당해야 한다. 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통제로서는 정치적 통제, 경제적 통제, 문화적 통제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통제상황들이 기자로 하여금 오보를 생산케 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 된다.

기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통제로서는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법에 의한 규범적 통제, 정치적 이해집단에 의한 통제,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에 의한 통제들을 포괄하지만 주로 행정부에 의한 행정적 통제를 의미하게 된다. 법에 의한 통제는 언론법과 언론관계법, 그리고 언론관련조항들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고, 정치적 이해집단에 의한 통제는 경실련, 공선협,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고, 정치적 상황에 의한 통제는 전쟁이나 IMF사태와 같은 국가가 처한 위기적 상황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경제적 통제로서는 광고주에 의한 통제, 독점과 집중상황에 의한 통제, 카르텔에 의한 통제, 그리고 경제적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통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조직적 통제와 결부되어서 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진다.

광고주에 의한 통제는 광고물 자체를 통한 통제, 홍보기사의 요구를 통한 통제, 경쟁회사의 제품금지를 통한 통제, 그리고 논쟁적 문제회피를 통한 통제 등을 포괄한다. 독점과 집중에 의한 통제는 네트워크와 체인에 의한 통제, 통합소유형태에 의한 통제, 다각소유 형태에 의한 통제, 공동계약에 의한 경영형태에 의한 통제가 있다.

카르텔에 의한 통제는 현재로서는 신문산업에 국한되는 통제유형으로서 신문가 격이나 신문제작과 운영에 관해 발행인들이 담합함으로써 행사되는 통제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경실련, 소비자단체, 환경단체와 같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사회적 통제는 사회적 단체들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고, 문화적 통제는 문화전통이나 규범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많은 경우에 사회적 통제는 문화적 통제와 결부되어서 행사되는 특성을 가진다.

라. 국가차원의 배경

국가차원의 배경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이익의 신장을 위해서 국가가 언론에게 행사하는 각종 영향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가차원의 배경이란 언론에 가해지는 국가적 통제상황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언론의 공공책임으로서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에 속하

지 않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을 의미한다. 관련 실정법으로는 국가보안법, 군형법,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등이 존재한다.

기자는 보도함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실보도의 책임과 국가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공공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언론의 공공책임은 일반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보다는 엄격하고 가혹하기 때문에 기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진실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진실을 과장, 축소, 왜곡, 편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이익의 신장도 기자에게 비슷하게 작용한다. 기자는 보도함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실보도의 책임과 국가이익의 보호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이 경우,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국가이익의 보호차원에서 진실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왜곡하게 된다.

일본언론은 JAL기 추락사건의 경우 국가이익의 보호차원에서 진실을 왜곡했으며, 미국언론은 U-2기 추락사건과 쿠바침공사건에서 국가이익의 보호차원에서 진실을 외면하면서 침묵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마. 보도관행차원의 배경

오보를 유발하는데 기여하는 보도의 부정적 관행으로서는 무리저널리즘(herd journalism), 패거리저널리즘(pack journalism), 하이에나저널리즘(hyena journalism), 카멜레온저널리즘(chameleon journalism), 낙하산저널리즘(parachute journalism), 촌지저널리즘(cheque journalism), 황색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자민족우선주의적 저널리즘(ethnocentric journalism), 신화창조적 저널리즘(myth-making journalism), 아프카니스탄주의적 저널리즘(afghanistanism journalism), 현지정략편승저널리즘, 내정간섭적 저널리즘, 그리고 정책도구적 저널리즘 등이 존재한다.

무리저널리즘이란 사건을 취재함에 있어서 기자들이 무리지어서 몰려다님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상실하는 보도관행을 의미하고, 패거리저널리즘이란 사건을 취재함에 있어서 패거리를 형성함으로써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보도관행을 의미한다.

하이에나저널리즘이란 사건을 취재함에 있어서 약한 자와 “썩은 고기”만을 쫓아서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하고, 카멜레온저널리즘이란 사건을 취재함에 있어서 환경적응을 위해서 쉽게 변색하는 보도관행을 의미한다.

낙하산저널리즘이란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수처럼 그 사건만 취재하고 현장을 곧 떠나버리는 보도관행을 의미하고, 촌지저널리즘은 금전이나 향응과 같은 대가를 받고 취재·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황색저널리즘이란 자본주의 언론의 특성으로서 사건의 흥미성, 쾌락성, 선정성, 자극성만을 추구하는 보도관행을 의미하고, 자민족우선주의적 저널리즘이란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문화만을 과장되게 좋고 우수하다고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한

다.

신화창조적 저널리즘이란 전쟁보도나 올림픽, 월드컵 같은 대형스포츠행사의 보도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 때문에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신화를 만들어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하고, 아프카니스탄주의적 저널리즘이란 국내 주요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외면하면서 외국의 주요 사건을 크게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현지정략편승 저널리즘이란 사건이 발생한 현지 정부의 정략에 언론이 알게 모르게 편승함으로써 진실을 외면하게 되는 보도관행을 의미하고, 내정간섭적 저널리즘이란 국가이익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보도관행을 의미한다.

정책도구적 저널리즘이란 언론이 국가의 정책도구처럼 알게 모르게 정부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기자는 사건을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국가이익과 정부이익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권이이익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항상 국가와 국민의 편에 서서 보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오보를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우리 나라 기자의 의식차원의 관행으로서는 풍조주의적 경향, 저항주의적 경향, 권위주의적 경향, 징검다리적 경향 등이 존재한다. 풍조주의(風潮主義)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가벼운 태도, 언론이나 저널리즘에 대한 진지하지 못한 태도, 사건을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적당주의적 태도 등을 총칭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저항주의란 사건을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마치 투사처럼 반대하고, 폭로하고, 공격하고, 저항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권위주의란 권력적 권위를 내세워서 취재·보도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언론은 결코 권력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봉사기관이며 국민으로부터 권능이 위임된 신탁기관으로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징검다리적 경향이란 기자들이 언론을 천직이나 평생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론을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정계를 꿈꾸는 정치부 기자, 관계를 꿈꾸는 정치부 기자, 기업진출을 꿈꾸는 경제부 기자들이 관련 기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관행 속에 오보발생의 가능성이 숨어있게 된다.

4. 개선방향과 대책

오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조직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관행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오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오보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인 기자 차원과 언론사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자충원제도의 개선

바른 기사는 바른 기자가 만들고, 반대로 바르지 못한 기사는 바르지 못한 기자가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오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자의 자질과 전문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좋은 기사를 만들려면 좋은 기사를 먼저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자의 충원과정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란 뜻이다. 따라서 충원방법의 전문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론은 단순한 기능직이 아니고 전문직이며, 기자는 단순한 사인(私人)이 아니고 공인(公人)이다. 언론은 머리의 게임이라기보다는 가슴의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기자를 뽑는 데 국어, 영어, 상식, 논술시험과 더불어 사명감과 동기, 적성과 능력도 함께 테스트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천제나 인턴제도의 효과적 운영도 바람직하고 자격을 대학원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언론이 전문직을 지향한다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고려가 주어지는 게 마땅하다 하겠다.

2) 교육과 훈련의 체계화

정규적인 학교교육과 직장교육이 기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학과 언론사가 바른 기자를 만들기 위해서 산학협동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뜻이다.

학교에서는 예비기자들에게 바른 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사상, 철학, 법과 윤리, 그리고 비교언론분야의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도의 자유와 책임,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국가의식과 역사의식에 관한 교육도 강화됨이 바람직하다.

바른 기자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학교교육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 학교기관에서 하고 있는 재교육, 외국연수 등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3) 윤리화의 제도적 정착

우리 사회에는 각종 윤리강령과 윤리기구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강령과 기구들이 전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언론은 언론의 특성상 법에 의해서 규제되기보다는 윤리강령에 의해서 자율규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언론사와 언론계는 윤리강령을 제정한 이상 그것이 준수되도록 독립성과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사와 언론계는 윤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기구가 제도로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리기구가 붕괴되면 그 다음에는 법이 자연스럽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심의기능의 제도화

언론사와 언론계는 다양한 심의기구들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심의기구들이 명실상부하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언론사와 언론계는 더 늦기 전에 기존 심의기구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하겠다.

언론사와 언론계는 우선 심의기능과 기구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바꾸어서 심의기구의 위상을 격상하고, 심의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심의활동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해야 하며,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심의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다.

미국의 Detroit Free Press는 모든 기사에 대하여 독자로 하여금 정확도를 평가하는 설문지를 보내서 응답을 접수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기자는 담당국장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New Yorker는 회사 내에 8명의 기사심사원(fact checker)을 두고 그들이 기사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의 정도를 심사·평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5) 기사실명제의 확대 실시

현재 많은 언론사들은 기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사는 기사실명제를 모든 기사로 확대 실시할 뿐만 아니라 오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해야 하겠다.

6) 자체 정정노력의 강화

선진국의 언론은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정정하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Washington Journalism Review(1984. 6월호, p.27)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신문들은 한 주에 3~5회의 정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보도의 빈도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정보도를 가장 빈번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대표적 신문은 New York Times와 Louisville Courier Journal이다.

7) 비평기능의 활성화

우리 사회에는 비평다운 비평문화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기관으로서의 언론은 비평으로부터 가장 해방된 초월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신문은 방송을 비평하고, 방송은 또한 신문을 비평하는 매체횡단적 비평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놓여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평은 모든 발전의 원동력에 해당된다. 비평이 없으면 사회와 조직은 정체되어 썩게 마련이다. 비평이 생명인 언론은 그렇기 때문에 각계의 비평들을 가슴으로부터 수용해야 한다. 비평하려면 비평을 겸손히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에 의한 비평, 독자들에게 의한 비평, 사회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학부모단체들에 의한 비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기구들은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비평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언론사내 비평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평은 매체횡단적 비평이라 말할 수 있다. 신문이 신문을 비평하고, 방송이 방송을 비평하고, 잡지가 잡지를 비평하는 동종매체간 비평뿐만 아니라 신문이 방송을 비평하고 방송이 또한 신문을 비평하는 이종매체간 비평문화의 정착은 오보를 줄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언론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

8) 조사·연구기능의 확대

언론은 정보지식산업일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산업이고 의식산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조사·연구기능은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그리고 기자의 전문성은 조사·연구기능에 의해서 크게 제고되고, 오보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감각만으로 보도하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된다. 선배한테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과 지식만으로 보도하는 시대 또한 지난 지 오래된다. 언론은 고도의 경쟁산업이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론에 기초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이 경우, 이론에 토대한 기술과 지식의 활용은 조사·연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이 만나야 한다. 저널리즘과 사회과학방법론이 만나는 정밀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생각하는 기자, 공부하는 기자, 진지하고 성실한 기자,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자들이 오보를 줄이고 바른 기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9) 대기자제도의 확대운영

우리 사회에서 기자의 수명은 너무 짧은 것 같다. 모든 기자들이 현장취재를 여서 졸업하고 데스크나 이사가 되기를 원한다. 어떤 기자는 하루 속히 정계나 관계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기자라고 불리는 것을 무능력과 불명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바른 보도는 기자의 경험이나 경륜과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보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초보기자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다.

New York Times의 James Reston 기자 같이 사장이나 이사직을 마다하고 평생 기자나 만년기자가 되고 또한 그러한 기자로서 남기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우리 사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별 언론사와 언론계는 대기자제도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자들도 기자로서 살다가 죽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이러한 대기자가 많을 때 오보는 사라지게 되고 언론은 획

기적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리라 믿는다.

10) 기자안식년제의 도입과 운영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즘과 비슷한 활동이다. 아카데미즘에 안식년제가 있다면 저널리즘에도 안식년이 있어야 한다. IMF사태 이후 기자의 노동강도가 위험한 수위에 있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기사를 작성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보겠다.

언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지식산업이고 정신문화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정보와 지식을 먹고 사는 전문인이란 뜻이다. 그들에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시간적 여유는 바른 기사를 작성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 된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년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5. 맺음말

오보의 질은 악화되고 있고, 오보의 양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보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사회의 신경계통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암적 존재가 된다. 오보는 또한 언론의 주요기능인 정보제공의 기능, 환경감시의 기능, 사회교육의 기능, 문화전승의 기능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이며 반언론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이러한 오보발생의 배경은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오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역시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오보발생의 중심 주체는 아무래도 기자 자신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직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등은 기자문제가 강구된 다음에 검토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르고 책임감 있는 기사를 배출하고 양성하는 노력을 우선해서 검토해야 한다.

바르고 책임감 있는 기자의 배출과 양성은 예비기자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자를 뽑는 충원과정, 인사배치과정, 교육훈련과정, 윤리적 규제과정, 기사실명제과정, 심의비평과정, 기사정정과정, 대기자제도의 도입·운영과정, 그리고 기자안식년제의 도입·운영과정 등이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강구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